



Innovation
Academy

Open Source Software 미래를 말하다

2019. 12.3

이 민석 학장
이노베이션 아카데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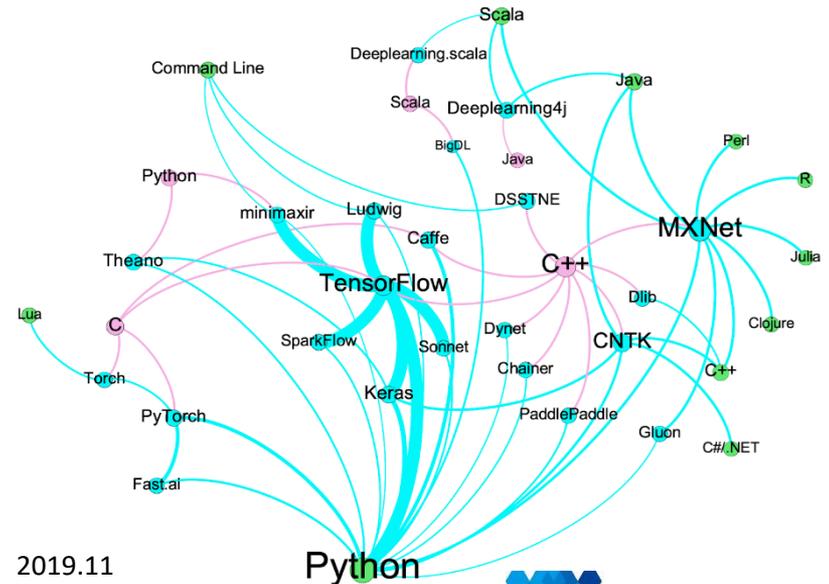
이 세돌 vs. 알파고, 201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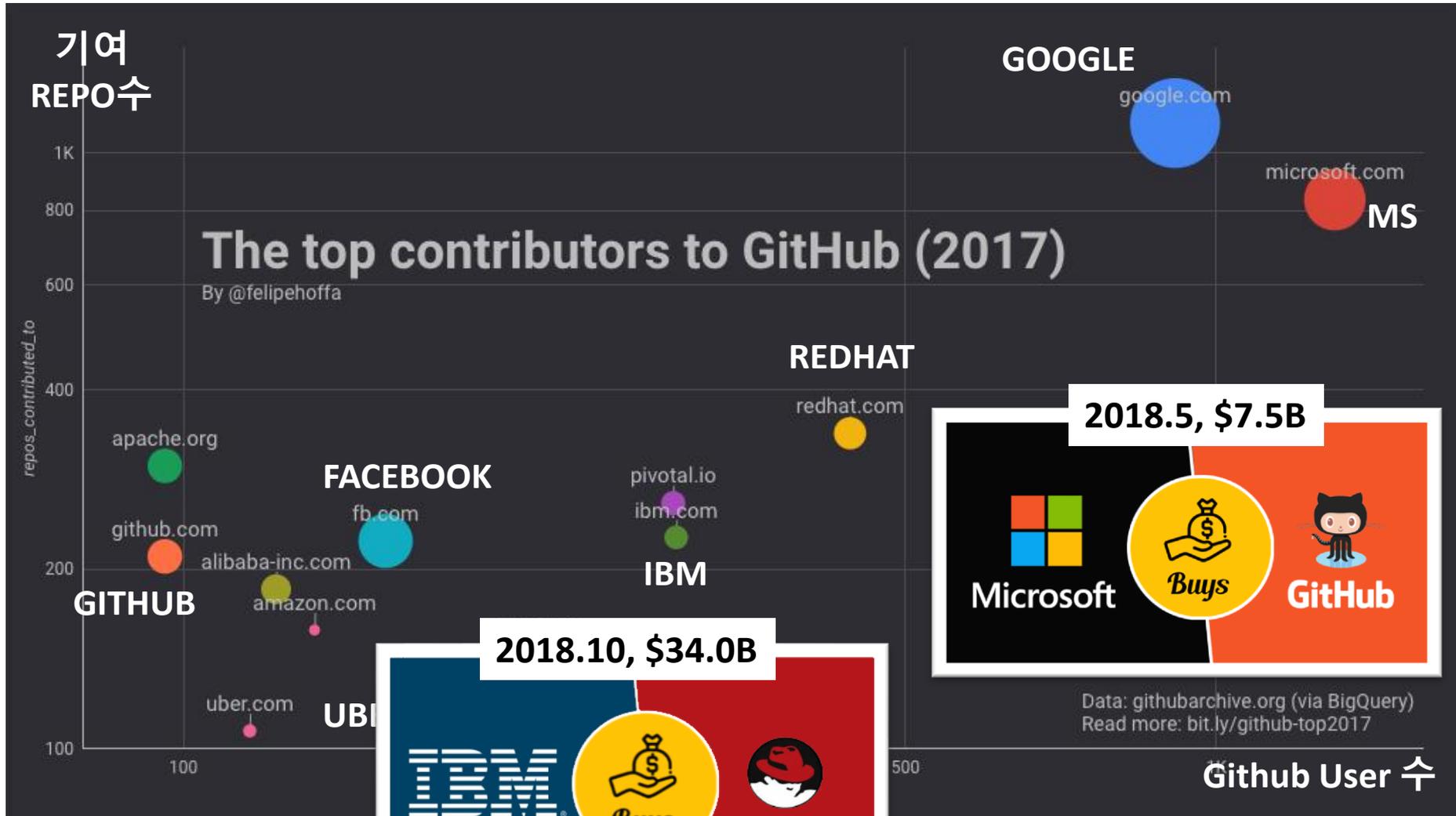
On the Year of 2015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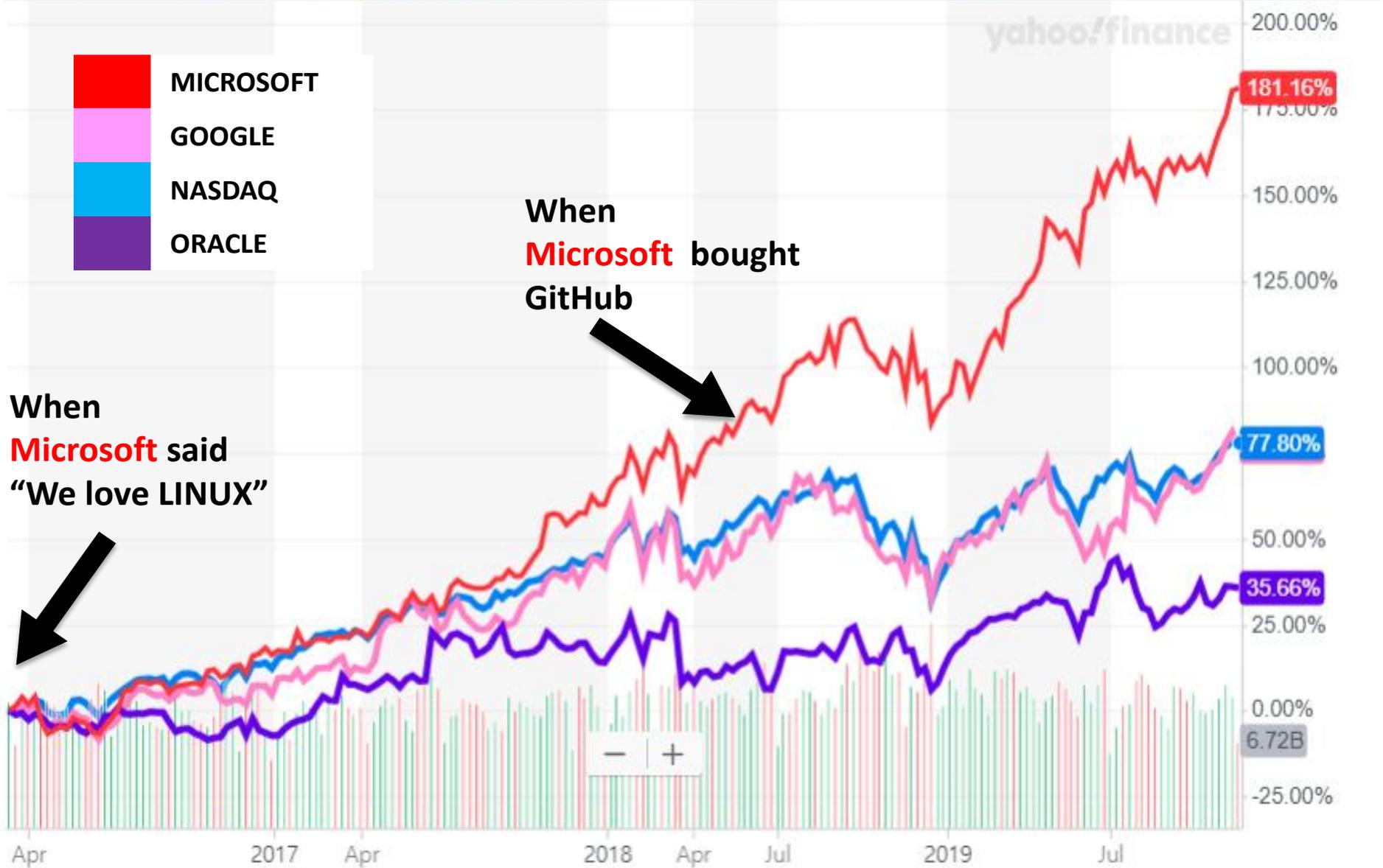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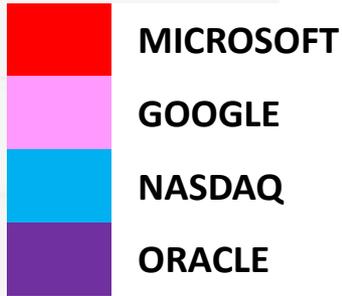
- 'TensorFlow' by Google
- 'DMLT' by Microsoft
- 'SystemML' by IBM
- 'Vesles' by Samsung
- 'Torch' by Facebook

ML tool	GitHub Stars
tensorflow	137.5K
keras	45.4K
pyTorch	33.7K
caffe	29.4K
MXnet	18.0K
CNTK	16.5K



Top Contributing Companies to GitHu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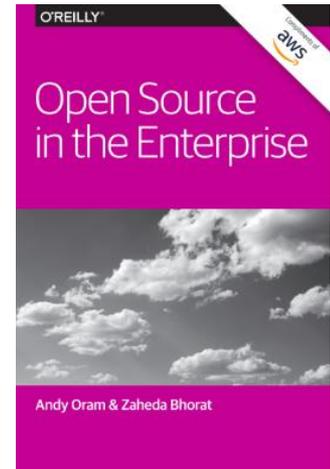




(ref, Yahoo Finance)

왜 Open Source 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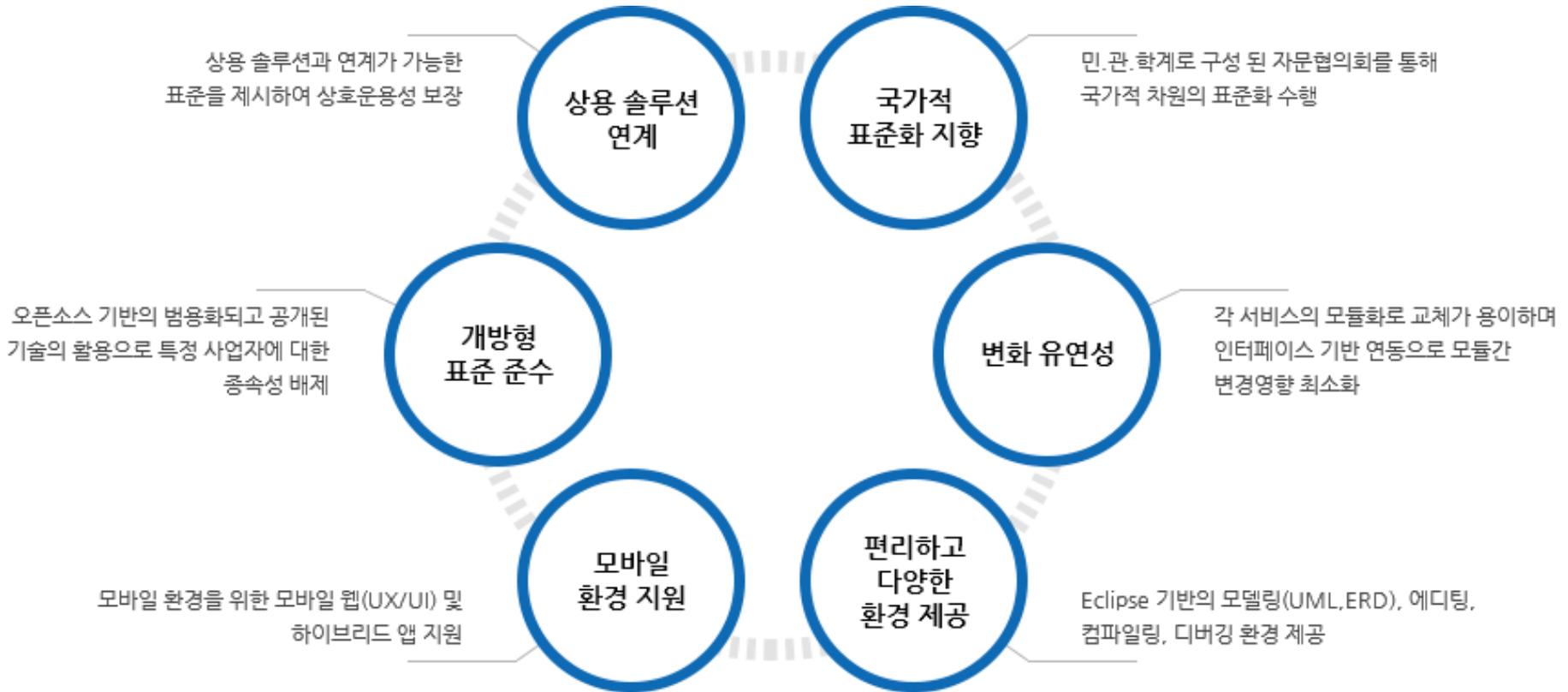
- **Multiplying the company's investment**
- **Benefitting from the most recent advance**
- **Spreading knowledge of the software**
- **Increasing the developer base**
- **Upgrading internal developer skills**
- **Building reputation**
- **Recruiting and retaining developers**
- **Faster startup of new companies and projects**



Ref. Open Source in the Enterprise, Andy Oram & Zaheda Borat
(<http://opensource.amazon.com>)



eGovFrame 10년



그 결과, (2019년 2월 기준)

- 전자정부 등 782여개 공공정보화사업에 적용
 - ✓ 특정기업 종속성 해소
 - ✓ 개발기간 단축
- 총 8,951여명 표준 프레임워크 교육
 - ✓ 정규과정수료 5,109여명
 - ✓ 현장교육수료 : 3,674여명
- 72만 여 다운로드 기록
 - ✓ 공공.민간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
-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 소프트웨어
 - ✓ 완료 217건 , 진행 17건
- 표준프레임워크 해외 적용
 - ✓ 11개국, 25개 사업

표준프레임워크 포털
eGovFrame



그리고, PaaS-TA over





이민석

2014년 11월 5일 · 수정됨 · ① · 👤 ▼

수퍼개발자 K 우승자. 우리나라 오픈소스 개발자 정말 힘들다고 울먹.. — 함께 있는 사람: 장기영

📷 사진 태그 📍 위치 추가 ✎ 수정

👍 장영승, 송태웅, 외 73명

댓글 4개 공유 9회

👍 좋아요 💬 댓글 ➦ 공유하기



김은주 저도 마음이 먹먹합니다. 오늘도 한결같이 감사합니다.

좋아요 · 답글 달기 · 5년



김상규 제 주변의 달힌 소스 개발자들도 울먹이고 있다고 하네요..ㅠ

좋아요 · 답글 달기 · 5년



신현목 장기영 그래도.. 화이팅!

좋아요 · 답글 달기 · 5년



최성훈 멋짐!

좋아요 · 답글 달기 · 5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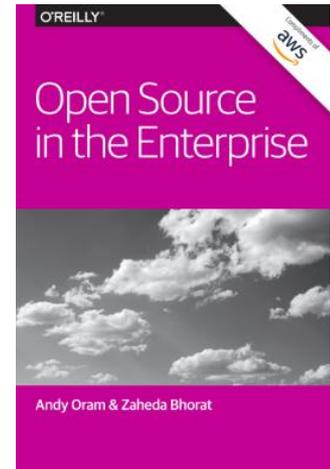


댓글을 입력하세요...

😊 📷 GIF 🗨️

왜 공공도 Open Source여야 하는가?

- 사용한 세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
- 민간의 혁신을 빠르게 공공 서비스로 수용
- 공공의 기술적 경험과 혁신을 민간에 전파
- 로열티 없이, 국내 개발자 일자리의 창출
- 공공의 소프트웨어/데이터 기반 서비스 역량 증진
- 후지지 않은 - 쓸만한 - 편한 - 착한 공공 서비스
- 확실한 시장을 통한, 개발 인력의 확보
- 시급한 공공 서비스의 빠른 제공



Ref. Open Source in the Enterprise, Andy Oram & Zaheda Borat
(<http://opensource.amazon.com>)



Open Source Software 미래를 말하다

- OPEN 을 다시 생각하자.
- 지금까지 Open은 Open이 아니었던 말인가?
- 그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?



Open 이란?

- 밖으로의 Open
 - Project : **Source Code, Documents, Roadmap, Data, ...**
 - Governance : **Decision Making Process, Contributing Process, ...**
 - People : **Developers, Evangelist, ..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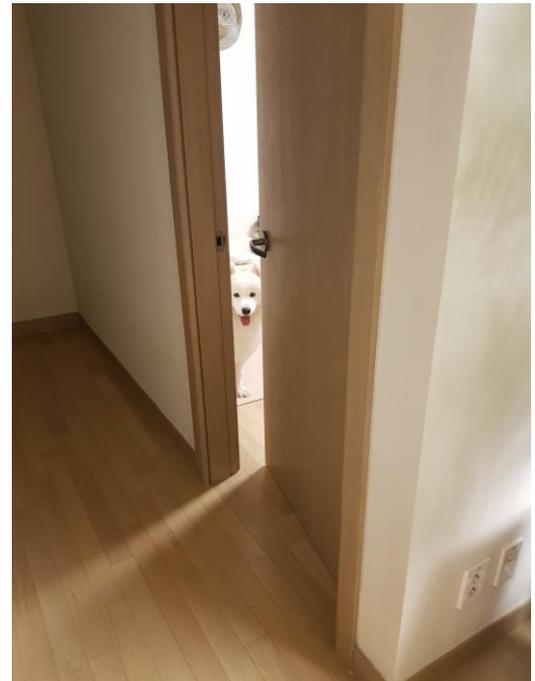
- 안에서의 Open
 - Open의 시작은 내부 칸막이의 **제거**
 - 밖으로의 Open과 관련된 일이 모두 업무라는 **규칙**
 - Open Source에서 온 것은 Open Source로 돌려보낸다는 **의지**
 - 우리와 관련된 Open Source에의 기여도 업무라는 **확신**
 - 기술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도 업무라는 **공감**
 - 진짜 '**밖으로의 Open**'을 해야 Open한 거라는 **합의**
 - 내부와 외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**믿음**



지금까지 Open은 Open이 아니었던 말인가?

- 공공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
 - 외주 개발 방식을 사용
 1. 열심히 하셨지만
 2. 커뮤니티 활성화보다는 기술적 과업에 집중
 3. 개발 이후 개발사의 상황에 지속 가능성에 RISK
 4. 그래서 유지/개선을 위한 외주 → 1

**Open은 했지만
충분하지 않았다.**



그럼 공공이,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?

- Open Source First
- 그보다 이제는.. Open Source Native

**Open Source로 할 것을 고려하여 예산과 전략을 수립
=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고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**

- 이제는 in-house 개발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?

**모든 서비스의 고객으로서의 정부에서
➔ 모든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정부**

- Open Standard, 아직 늦지 않았다는.

내년은 2020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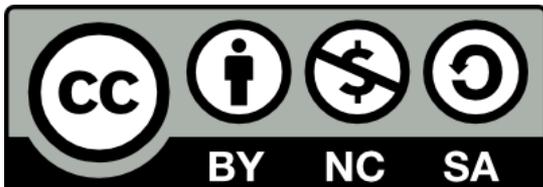


고맙습니다.

이 민석



Innovation Academy



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
[저작자표시-비영리-동일조건변경허락 2.0 대한민국 라이선스]에 따라
이용할 수 있습니다.